

노관규 순천시장 “세계와 경쟁 ‘문화산업 메카’로 우뚝”

●민선8기2주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예비 글로벌대학 등 성과 애니·웹툰 ‘K-디즈니 순천’ 구축...도시 전체 산업기지와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노관규 순천시장이 대한민국 문화산업 메카 순천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노관규 시장은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730일간의 민선 8기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의 조사 결과 지난해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곳으로 집계됐다. 2위를 차지한 에버랜드보다 190만명이 많은 수치다.

올해 새롭게 단장한 순천만국가정원도 개장 3개월 만에 170만명이 방문하며 수익금 100억원을 달성했다.

‘2024 제주포럼’에 초청받은 노관규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도시 글로벌 브랜딩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 광역자치단체와 어깨를 나란히하며 순천의 위상을 입증했다.

정원박람회로 입증받은 행정력은 정부의 적극 지원을 불러왔다. 순천대학교가 글로벌대학30에 예비 대학으로 선정된 데 이어 동천 국가하천 승격,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지정 등 굵직한 지원이 이어졌다.



노관규 시장이 최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순천시 제공>

한화, 롯데, 포스코 등 글로벌 기업의 대규모 투자도 줄을 이었다. 해룡·울촌 산단은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으로 인해 추가 산단 개발이 필요할 정도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의 투자협

약으로 11개 기업, 1조2천억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성과와 1천3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마련했다.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순천시는 우주,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으로

청년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영역 확장에도 박차를 가한다.

순천시는 지난달 25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국 유일 문화콘텐츠 기획발전특구로 지정되며 애니·웹툰 등을 활용한 ‘K-디즈니 순천’으로 도시전체를 산업기지와 할 방침이다.

‘K-디즈니 순천’은 순천시가 월트디즈니 본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대학30으로 선정된 순천대학교를 비롯한 인접 대학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 순천을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3천억원 투자, 530명 고용을 포함한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기회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우주발사체 조립장으로 마련된 우주·항공 산업도 키워낸다. 한화가 차세대 발사체 국책 사업을 수행하게 된 만큼 울촌산단에 들어선 스페이스 허브 발사체 제작 센터와 연계해 관련 우주 산업과 로봇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해 미래 첨단 산업 발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권 인접 도시와 연합·연대를 강화한 남해안벨트 허브도시 완성으로 지방소멸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노관규 시장은 “지난 2년, 순천은 도시 체질을 변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도시의 표준을 만들었다”며 “순천은 순천만과 정원의 도시를 넘어 문화콘텐츠로 세계 최고 도시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메카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천=정기기자

“섬·바다 공존”...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 선포

5개 만 거점 전략사업 추진

여수시가 여수 미래 100년을 이끌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1일 여수 문화홀에서 열린 선포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 백인숙 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인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미래해양도시 여수’를 대내·외에 공식 선포했다.

여수시는 여수 반도를 둘러싼 5개 만에 대해 바다와 육지가 공존하는 보전과 균형개발을 목표로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이를 통해 여수의 제도야과 부흥을 이끌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다.

정기명 시장은 선포식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인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글로벌 미래해양도시 여수’와 핵심가치인 공존·균형·연결, 5개 만별 주요 전략사업들에 대해 발표했다. 5개 만별 핵심 거점 전략으로 ▲여사



여수시가 지난 1일 여수 문화홀에서 ‘여수만 르네상스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한 가운데 미래비전인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미래해양도시 여수’를 대내·외에 공식 선포했다. <여수시 제공>

만-지속 가능한 해양생태 보전 거점 ▲장수만-섬과 연계한 해양 치유 웰니스 거점 ▲가막만-시민이 행복한 해양 레저문화 거점 ▲여수해안-글로벌 해양관광 컨벤션 거점 ▲광양만-미래 신성

장 녹색산업 거점을 제시했다. 향후 총 23개 전략사업과 6개 사업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명 시장은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시민과 함께 만든 ‘여수만

르네상스’는 여수 미래 100년 대계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세부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직원간 소통·화합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

서형빈 보성부군수 취임...지역 역점사업 주력

서형빈 제35대 보성부군수(사진)가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3일 보성군에 따르면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이 전남도 인사 발령에 따라 보성군 신입 부군수로 취임했

다. 서형빈 부군수는 “3경 3보항의 일이 빛나는 보성군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녹차수도 보성을 제2의 고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서 부군수는 “보성군 공직자들과 함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전남도와 보성군, 중앙부처와 보성군 간에 가교역

할에 최선을 다해 원활한 군정을 펼치겠다”며 “직원 간 소통하고 화합하는 조직문화 조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보성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성을 잇는 경전선·남해선 전철화 사업, 보성읍 도시가스 공급사업, 울포 해양테마관광거점 조성 사업 등 살기 좋은 보성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장흥군 출신인 서형빈 부군수는 장흥고등학교 졸업 후 초당대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했으며, 장흥군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으로 목포시 경제산업국장, 전남도 자치행정과장 등을 역임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귀농·귀촌 1번지 장성 탐색 프로그램 ‘호응’

도시민 농촌 거주 기회·귀농 교육 제공

장성군 귀농학교의 ‘귀농·귀촌 1번지 장성 탐색’ 프로그램이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3일 장성군에 따르면 귀농학교는 귀농·귀촌 희망자와 전입 초기 귀농인이 장성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귀농 성공사례 공유, 귀농·귀촌의 이해와 설계, 기초 토양 관리법, 소형 농기계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에는 교육생들과 함께 ▲전남에서 살아보기 ▲귀농체험동지 사업 현장 장을 직접 찾아가는 ‘귀농·귀촌 1번지 장성 탐색’ 시간을 가졌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

시민에게 농촌에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와 숙소가 제공되며 지역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어 귀농·귀촌 생활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귀농체험동지’ 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임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장성에선 남면2개소, 황룡면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장성군은 이 밖에도 ▲영농 정착 ▲농기주택 수리비 ▲귀농 우수창업 활성화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장성=김문태 기자

고흥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총사업비 724억 투입...73개 마을 광역상수도 공급

고흥군은 3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역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도양읍 등 8개 읍·면 73개 마을에 국비 507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24억원을 투입, 송·배수관 125km를 매설 정비하며 2027년까지 광역상수도를 공급한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마을상수도와 개인 지하수에 의존하며 생활했던 73개 마을 3천63세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흥=최봉환 기자

현재 고흥군의 광역 및 지방상수도 보급 현황은 전체 515개 마을 중 344개 마을에 상수도를 보급 중(보급률 65%)이다.

이 사업을 통해 보급률을 80.9%까지 높여 안정적인 수도를 공급으로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역상수도 미급수 마을에 대해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과 국비를 확보해 주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물을 먹을 수 있도록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광양제철마음이음꽃꽂이봉사단,웃음치료봉사

지역 어르신 정서 안정 위해 직접 만든 꽃꽂이 작품 전달 등

광양제철소 ‘마음이음 꽃꽂이 재능 봉사단’은 3일 “지난 1일 광양시 금호동 나눔스쿨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정서 안정을 위한 웃음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

봉사활동에는 마음이음 꽃꽂이 재능 봉사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눔스쿨을 방문한 어르신들에게 각자 제작한 꽃꽂이작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다.

이번 활동은 평소 이웃과 교류가 적은 어르신들의 사고 활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며 정서적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마음이음 꽃꽂이 재능봉사단은 어르신 고

립문제를 해결하고 배려계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관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그룹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봉사단은 지난해까지 카네이션 코사지·화분 등 2천700여개가 넘는 꽃꽂이 작품들을 직접 제작, 62개 지역복지기관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와 따사로운 동행을 함께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어르신들과 지역 나들이 행사, 어르신 가정방문·안부 살피기, 여름철 보양식 지원, 생활 필수품 전달 등 어르신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다각적 인나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광양=양홍렬 기자



담양군 창평면 해곡리, ‘전국 모범경로당’ 선정

보조금 관리 투명성·프로그램 참여 등 7개 분야 심사

(사)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창평면 해곡리 노인회는 “최근 해곡경로당이 ‘전국 모범경로당’으로 선정, 현판식을 개최하고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기원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박영돈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장을 비롯한 이만기 창평면장, 최현동 군의원, 박태식 창평농협장, 송태영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 창평면분회장 등 마을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범경로당 선정을 축하했다.

모범경로당은 보조금 회계 관리 투명성, 경로당 회원 관리, 프로그램 참여 등 7개 분야를 평가해 선정된다.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는 지난 4월

창평면 해곡경로당을 추천했다. (사)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와 중앙회의 심사를 거쳐, 전국에서 56개 경로당이 최종 심사를 통과해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됐다.

박영도 대한노인회 담양군지회장은 “해곡경로당을 비롯한 각 경로당의 모범 사례를 전파해 이용 어르신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로당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도 해곡경로당 회장은 “전국 모범경로당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참석자들과 협조해 준 주민 덕분”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더 단합하고 솔선수범하는 해곡리 노인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